

2002년 12월 20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해외동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참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의 이 승리에겐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승리했습니다.
온 국민 모두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저는 이 모든 영광을 국민여러분과 해외 동포 여러분께 바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찬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시대가 이제 끝날 것입니다.
원칙과 신뢰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진정한 보통사람들의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노사가 화합하는 경제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경제를 일으켜 취업과 실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불우이웃과 장애인 등 모든 소외계층

에게 따뜻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겪은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재기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끝까지 선전하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열망과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주의의 장벽을 허물지 못하는데 대해서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은 발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국민통합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또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긴급한 과제와 험난한 도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당선자로서 북한핵문제로 드리워진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SOFA개정 등 한.미간의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국민의 절실한 기대와 저의 입장을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통적인 한.미간의 우호동맹관계는 21세기에도 더욱 성숙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한.미관계는 정부차원을 넘어서 양국 국민의 진정한 이해와 협력을 통해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저는 양국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함께 지향하고 추구하는 문화국가로써 서로의 존엄을 인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본.중국.러시아.EU 등 우방국가와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권 인수작업도 차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새정부 출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인수활동을 통해서 현정권의 임기말까지 국정운영에 어떤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일거에 다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대통령선거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을 다시 한번 과시한 역사적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사상 최초 수십만 유권자의 자발적 성금과 자원봉사를 통해서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그토록 열망했던 정치의 혁명적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에 자랑할만한 일류정치가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IMF위기를 가장 훌륭하게 극복해낸 국민답게,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경선제를 성공시킨 국민답게,

사상 최대의 월드컵대회를 훌륭하게 성공시킨 국민답게,

마침내 21세기 첫 대통령의 선거를 세계를 놀랄만큼 훌륭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모든 것은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국민의 높은 의식수준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위대한 저력과 가능성을 희망찬 미래로 실현시켜나가겠습니다.

반드시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의 힘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